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올해 아버지 구순인 거, 알고 있지?”

친정엄마의 귀뜸에 기절하게 놀란 사람은 다행히 나뿐이 아니다. 오빠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우리 남매는 아버지가 올해 구순인 것을 생신 일주일 전애 간신히 알았다. 서양식 나이 계산법에 익숙한 우리는 아버지가 34년생이시니까 내년애 구순인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구순은 자식들이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뻔했다. 우리는 서둘러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 예약을 했고, 가족들의 오붓한 축하 속에 아버지의 구순 파티를 관촬하게 보낼 수 있었다. 생일파티라는 말에 메뉴에 없는 미역국을 준비해주신 음식점 직원들은 아버지가 무려 구순이라는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날렵한 청바지와 재킷을 입고 오신 아버지의 외모는 아무리 보아도 구십세라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시에 구순을 맞이한 바람에 구순 기념 여행이나 다른 축하 이벤트는 당연히 준비하지 못했다. 늦가을의 바쁜 일정들을 일주 넘겼다 싶은 즈음이 되어서 아버지

구십세

와 강화도에 새우구이나 먹으러 다녀올까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안그래도 한번 놀러가보려던 참’이었다며 난 데없는 액셀 파일을 즉시 보내셨다. 2박3일의 철원 여행 계획표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숙소와 관광택시와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 예약까지 완료되어 있었다. 엄마와 두분이 철원에 나들이 다녀오실 생각이었는데 딸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하셨다. 내가 모시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두분의 여행에 얹혀 가는 셈이 되었다.

아버지의 꼼꼼한 여행 계획표에 의하면 일산에서 철원까지 한번에 가는 시외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서너번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 내가 운전해서 모시고 다녀오면 딱 좋을 것인데, 내 스케줄 상 최대 1박2일만 가능했다.

“아버지, 제가 마지막 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일정을 1박2일로 줄여서 다녀오시는 건 어떤가요? 제 차로 다니면 이동시간이 많이 줄어들 테니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니 됐다. 예약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바꾸려면 오히려 복잡하다. 너는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그냥 하루만 함께 다니는 걸로 하자.”

아버지는 일정을 조절해서 함께 다니자는 제안을 쿨하게 거절했다. 두분이 배낭을 메고 버스를 서너번 갈아타는 것이 고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잘 다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다. 나는 걱정하는 척하던 것도 빠르게 접어치웠다. 실은 ‘알아서 할테니 신경 쓸

거 없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반가운 것이 없었고, 원래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나은 여행자였다.

계획을 이미 다 짜놓았으니 나는 아무 고민이나 연구 없이 운전병만을 자처하며 쭉쭉따라 다니었는데, 계획표에 있는 일정이 그렇게 강행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철원 주상절리길이 편도 3.6킬로미터라고 하길래 평소 걷기에는 자신이 있으니 혼자라면 왕복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오르막과 내리막이 꽤 많은 길이었다. 왕복은커녕 편도조차 꽤 힘들었다. 아버지도 생각보다 힘들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시게 어땠겠냐고 권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행하니 앞질러 가버리었다. 여러번 쉬어가며 간신히 완주한 주상절리길 그트머리의 휴식공간에는 아버지처럼 이 길을 과소평가하고 쉽사리 도전했던 노년의 어른들이 여러 명 낫이 빠져 앉아있었는데, 비슷한 몰골로 숨이 턱에 닿아 도착하는 후행들에게 웃음 섞인 격려를 보내주었다. “고생했어! 이제 다 왔다고!”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렇게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그 길이 어쩌면 아버지의 인생을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건강한 노년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강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맡길 일이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구십세에도 스스로 일상을 가꾸어나가는 아버지의 한결같은 자세일 것이다.

종교칼럼

응답하라 1998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니 하나쯤 어찌 되어도 상관없을 듯 싶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것.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쉬운 일이다.

출가한 뒤로는 치과 간 일이 거의 없다. 선방 다니던 시절이니 꽤 오래 전에 왼쪽 위의 어금니를 때웠던 것이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다. 치과에 가니 나이 많은 의사가 슬쩍 들여다 보더니 때우지 않고 놔둬도 된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 어쨌거나 치료를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기존의 치료를 무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모습답지 않게 비취졌다. 웬지 무성의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때 다시 한번 ‘출가 전에 제대로 치료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뭔가 커다란 돌이 씹혀서 보니 이빨 때운 것이 떨어져 버렸다. 무려 25년 만의 일이다. 25년이나 되도록 말뚝하게 잘 버틴 것이 정말 대견했다. 더 대견한 것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출가할 용기를 냈던 25년 전의 내 자신이다.

당시의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1998년 당시에 썼던 글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에서 화려한 시절은 끝났다고. 일종의 포기이자 항복 선언인데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다. 기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것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과거와 같은 격렬함과 충동은 없을 듯하다. 그것은 조용히 소리 없이 내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황당한 생각을 했다. ‘지금

까지 나만을 위해 나의 감정을 위해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남을 위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남을 위해 스스로를 다듬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몰릴 생각은 없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Freedom. At Last!’ 킹 목사가 말했다.”(1998년 5월 22일의 일기 중에서)

돌아보니 1998년도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해 있다. 대견하고 격려할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더 반성하고 반발할 일이다.

귀가 끊어질 듯 공기가 차가웠던 1998년의 어느 겨울날이었다. 조금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행사생활 중에 월일인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이었다. 저 하늘이 저리도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은 아마도 양상한 나뭇가지들 때문이라 혼자 생각했다. 그러곤 주머니에서 사냥니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 보았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다.

손에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힘든 행사생활이었다. 그런 나에게 위안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는 추억 속에서조차 희미하게 빛바래 버린 나의 사랑니였다. 비록 사랑니는 나를 떠나갔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사랑니 없이도 혼자 웃다가 웃고 그리고 그럭저럭, 중노릇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중헌’이라는 중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1998년 봄, 서울 신촌로타리 인근의 ‘신촌치과’. 나의 출가를 든든하게 지원해준 숨은 일등 공신이었다.

社說

유치경쟁 쓰레기소각장... 진짜 백조되려면

“내 안마당에는 절대 안돼”라는 혐오시설 기피현상인 ‘님비(NIMBY)’의 대표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다. 소각시 발생하는 연기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 통상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런데 광주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차지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 유상소각장 폐쇄이후 생활쓰레기를 남구 양과동 공영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양과동 매립장 운영도 2029년까지 밖에 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주시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6만 6000㎡의 자연녹지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

산구 연산동 등 5곳을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공모에 지원한 5곳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미운 오리”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백조’로 변신한 데는 광주시가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명품공원과 함께 레저·복지시설로 꾸미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치 지역에 지원되는 행정 인센티브 등 1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적 인센티브도 유치전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과 후보지 주민들간 갈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소각장이 남비를 넘어 진짜 백조가 되려면 주민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염 저감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 주민들이 정말 반기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까지 번진 빈대 공포증... 선제방역 시급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지역민들 사이에서 광주·전남 지자체의 방역체계가 허술해 빈대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일 오전 진도군 의신면의 어가 주택 1개 동, 외국인 숙소 1개 동에서 빈대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주택을 조사한 결과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빈대 사체 6마리를 발견했다. 또한 입주자의 집에서 2km 떨어진 외곽인 노동자 숙소에서도 방 세 곳 중 두 곳에서 빈대 네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앞서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 쌍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빈대에 물려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에 빈대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의 경각심은 느슨하기만 하

다. 실제로 광주시와 서구는 빈대가 확인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해 시민 건강권을 방기했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범정부 방역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전파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빈대는 주로 침대나 소파 등지에 서식하면서 사람 피를 빨아 먹는 유해한 해충이다. 감염병을 전염시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상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단 물리면 물질·두드러기 등 염증을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방역당국은 따라서 지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지기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빈대는 사람의 옷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중이용시설부터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주말 대학가 한 카페를 찾았다가 종이컵 사용을 놓고, 종업원과 손님이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달라고 주문한 손님이 테이블에서 한 모금 마신 것이 발단이 됐다. 곧바로 종업원이 다가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며 회용컵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며 응수했다. 다시 종업원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들고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뉴스도 안 보냐. 이미 그런 규정을 며칠 전 정부가 없던 일로 했다. 좀 알고 일해라”며 면박을 주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한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굳이 답을 말하려면 양쪽 모두 맞다고 봐야 한다. 종업원의 주장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매장에

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시행령 관련 종업원 대응 요령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매장내 종이컵을 제공하지 말 것’이며, 그럼에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은 제도기간으로, 종이컵 사용 금지를 자기도 요구하는 것은 옳지만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오늘(11월 24일)부터 실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님의 주장은 지난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일회용 종이컵 등을 규제 품목에서 뺀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행정상으로는 그의 주장이 맞는 셈이다.

하지만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난 1년간 소비자와 소상공인·종업원들이 애써 바깥에는 환경 실천의 모범사례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와 카페 종사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매장내 종이컵 사용을 삼가야 한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기고

문화도시 목표,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공존해야

국립극장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 경극을 판소리와 연결하려는 야심찬 시도에 해오름극장 1220석이 만석이다. 이날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행사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대만 출신 우상규 총감독의 의욕적인 해설이었다. 창극 현대화의 일환으로 판소리를 연극, 오페라 등 다른 장르와 융합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했다고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의미를 곁들여 해설하는 등 전통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경극과 판소리를 동시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 전통예술의 맛을 이해하면서 우리 판소리의 우수성과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전통 음악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판소리가 있고, 일본에는 가부키가 있으며 중국에는 경극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전통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선택의 폭과 표현 방식이 일반 대중문화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젊은 층의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미래로 계승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여 계승되도록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대중과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패왕별희’ 공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 문화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서남권 자치

단체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관광·문화 허브를 꿈꾸고 있는 목포시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다. 관광은 문화가 결여되어져야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패키지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해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낸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철 들어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주제로 하는 목포시의 ‘항구 축제’를 비롯해 신안군 자은도 백사장에서 열린 104대의 피아노 연주와 국악과 피아노의 협연 등이 인상적인데 우리지역의 블루오션인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무대를 꾸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종전과는 달리, 섬과 바다 등 목포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차별화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어가고,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문화도시에 걸 맞는 콘텐츠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현실화시켜 관광과 접목시킬 것이며, 그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이현진 전 목포시청 국장·경영학 박사

걸어서 남산을 올라가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사각사각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단풍으로 곱게 물든 나무 사이를 걷는 늦가을 남산 길은 운치 있고 아름다웠다. 친척 결혼식이 있어 서울을 가는 길에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을 찾았다. 그 곳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경극(京劇) ‘패왕별희’를 한국의 창극(唱劇)으로 연출해 선보인다 해서다. 왜 한국의 국립창극단(國立唱劇團)이 중국 경극(京劇)을 창(唱)으로 연출하려고 생각했는지, 우리의 창극과 중국 전통예술과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경극 관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에서 근무할 때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행사과 관련 중국정부 초청으로 ‘패왕별희’ 경극을 접한 바 있다. 소설 초판지와 장극영이 출연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즐겨 보는 중분위이지만, 배우들의 얼굴 분장이나 무대 분위기가 너무 생소하여 그 때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패왕별희’를 한국의 창극으로 재구성한다 하니 꼭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일부러 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